

“김정은 제안 진정성 있어 보여...상황 진전땀 북미대화 가능”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특사였던 박지원 의원에게 듣는다

대화기간 핵 개발 잠정 중단 실질적 ‘모라토리움’ 선언
북지도자 최초 남한 방문·집무실 공개 등 자신감 넘쳐
북미대화·북미평화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커다란 성과
우리 정부 안내심 갖고 교류협력 북-미 지렛대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대화,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봄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당장, 남북 간은 물론 북미 간의 대화 및 신뢰 분위기 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등 가야할 길이 멀다. 광주일보는 7일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에게 대북 특사단의 성과와 의미, 전망 등을 들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북 특사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어느 정도 기대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나도 놀랐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화 기간에 핵 개발을 잠정 중단한다는 실질적인 ‘모라토리움’ 선언이다. 비핵화는 제가 2014년 북한 김양건 비서 겸 통전부장을 만났을 때도 후세인, 카다피 예를 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핵 동결은 한반도 비핵화의 시작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선대보다도 훨씬 통 큰 결단을 했다.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이다. 최초로 북한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하기로 했고, 그의 집무실을 공개했다. 여기에 퍼스트레이디가 최초로 만찬에 참석했다. 또 특사단 방문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이는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자신감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북한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점진적 개방이 이뤄져서 경제가 좋아졌다. 500개 이상의 장터가 서고 500만 대 정도의 핸드폰이 유통된다. 민간 경제와 정보가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경제가 붕괴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6차 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 폭발력의 고도화는 확보됐고, 어느 정도 소형 경량화도 이뤄졌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국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박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본다. 북한이 처한 경제적, 국제적 상황이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은.
▲우선 북한이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아야 한다. 핵 모라토리움 단계에 진입하고 동결로 이어져 결국 핵 폐기 수순이다. 이는 9·19 합의로 돌아가면 모두 해결된다. 에너지 지원,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 평화협정 등의 과정을 행동 대 행동으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9·19 합의는 논란이 있지만 에너지 지원을 끊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원칙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의 숨소리를 들으려 할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재의 상황이 진전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조만간 북미 대화가 이뤄질 것이다. 높은 단계는 물론 낮은 단계의 대화의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데.
▲그것은 선언적 의미가 크다. 북한이 그렇게 하겠느냐. 역사시지는 협상의 기본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나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중간 선거가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은 트럼프에게 커다란 성과다. 여기에 노벨 평화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다. 이익이 되는 것에는 적극 나서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은 적극적으로지만 계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럴 수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진정성과 안내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 북한을 이끌고 가야 한다. 3·6 합의를 지켜야 한다. 비핵화는 힘든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다.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한미의 철저한 동맹과 신뢰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통해 미국-북한과의 지렛대 역할을 잘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 미국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 군수 비리 낙마...민주당 전략공천 여부 최대 관심

6·13 지방선거 누가 뛰나

해남군수

해남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설이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략공천설의 배경은 그동안 5명의 군수 중 3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입지자들은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남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간 경쟁 구도다. 민주당에서는 이길운(52) 전 해남군의회 의장과 김석원(61) 전 전남도의원, 윤재갑(63) 전 해군 군수사령관이 일찌감치 뛰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대세론을 업고 김왕근(61)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 김봉욱(72) 전 광주대 교수가 가세했다. 야당에서는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명현관(56) 전남도의회 일찌감치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지리를 잡았다. 윤광국(59) 전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과 이정우(59) 전 해남축협 조합장은 무소속으로 도전한다. 이길운 군의원은 3선으로 최연소 해남



김봉욱 전 교수



김석원 전 도의원



김왕근 전 부이사관



윤재갑 전 사령관



이길운 전 의장



명현관 도의원

민주당 입지자들 “전략공천 안돼” 목청
평화당 후보 1명·무소속 2명 출사표

군의회 의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잘 사는 해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남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한 김석원 전 도의원은 체육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여러차례 군수에 도전했으나 한 번도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다.
윤재갑 전 사령관은 퇴역 후 해남에 정착하며 정치에 입문, 총선 등 여러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왕근 전 부이사관은 농업정책 전문가

다. 그는 “지역·계층·세대간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소통·화합하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욱 전 교수는 출마 의지를 다지며 현재 저서를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명현관 도의원은 민주평화당 내 입지가 탄탄해 아직까지 다른 후보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의 정황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윤광국 전 본부장은 국민의당을 탈당한



윤광국 전 본부장



이정우 전 조합장

‘비리 낙마’ 실추된 해남 자존심 회복할까

5명 군수중 3명 사법처리
후보들 청렴·도덕성 강조

실추된 해남의 자존심 회복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다. 그래서 후보들마다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남군수는 2007년 박희천, 2010년 김충식, 2016년 박철환 군수가 비리 혐의로 내리 낙마했다. 군정 책임자의 잇단 낙마는 ‘부패 지자체’라는 오명과 함께 행정공백을 불러왔고, 지역발전은 뒷걸음질쳤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너도나도 없이 도덕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깨끗한 후보를 찾겠다는 지역민들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높다.
군수의 잇단 낙마로 인해 민주당 중앙당은 보성·무안과 함께 해남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략공천지로 결정되면 선거판은 급변하고,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승

복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대항하는 민평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의 세대결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타 지역과 달리 해남은 국회의원을 필두로 지방의원 대부분이 민평당 소속이어서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분석이다.
침체에 빠진 관광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출마 예정자들의 해법도 유권자 판단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해남의 최대 현안인 전남 서남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는 무려 12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해남은 땅끝이라는 우리나라 유일의 지명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동진처럼 관광객을 보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마산 달마고도와 연계한 땅끝마을 개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역대 해남군수 모두가 해남중·고등학교 동문이라는 특징도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